

## 가. 주요인터뷰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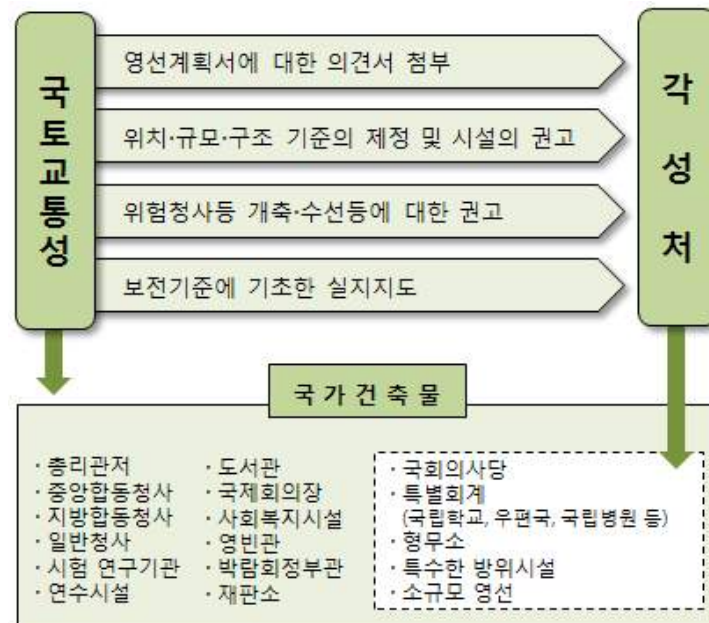


### 1.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공무원 인터뷰

- 일시: 2009.03.24 화요일 14:00~17:00
- 장소: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 중앙 합동 청사 제 2호관 회의실  
(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2丁目1-3)
- 참석자: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- 나카야마 (中山義章, 계획과 과장보좌),  
혼마 마이사쿠(本間大策, 계획과 보전지도실 관청시설스톡고도화추진관)  
연구진 - 이상민 부연구위원, 김진욱 부연구위원, 이민우 연구원,  
통역 - 김용선 박사(공학박사, 동경대 신영역창성학과연구과 연구원)
- 주요내용

#### [관청영선부 소개]

1. 관청영선부 조직
  - 본청 200명, 지청 전국 10개에 총 1150명 : 건축기술관련 950명 (1급 건축사 220명, 2급건축사 95명)
  - 크게 계획과과 정비과로 구성
  - 정부청사가 밀집되어 있는 가스미가세키(霞が関) 지역을 독립된 부서에서 관할
  - 기타 도쿄지역 공공건축물은 관동지방국 지청에서 관할
2. 관청영선부 근거법
  - 국가시설물에 대한 시설발주, 지도, 관리
  - 관리에 대해서는 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각 청 소관
  - [10조]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영선부 :
3. 대상 범위
  - 의견서 제출에 있어서는 모두 의무
  - 사법, 입법, 행정 중에서 행정에 속한 건물만 대상으로 함 (국방, 방위성 등 보관과 관련된 사항과 200만엔 이하 발주는 각청 각성에서 담당, 기술자가 없고 특수한 경우 국토교통성에 의뢰할 수 있음)
  - 표의 왼쪽 부분에서 총 400~500억엔 규모의 프로젝트 담당
  - 예전 2000억엔엔 정도에서 현재는 줄고 있음
  - 의견서 제출 결과 3000억엔, 그 중 2000억엔 정도 시행
  - 규모 비교 : 국토교통성 담당 > 법무성 > 방위성
  - 각 성, 청에는 담당 부처가 있고 100명 내외의 인원이 구성되어 있음
4. 관청영선부 배경
  - 행정개편 이후 민간위탁을 하게 됨
  - 그 이전에는 내부에서 설계까지 진행



#### <관청영선부 역할 개요>

##### [관청영선부 역할]

1. 의견서 제도
    - 모든 관련시설들 계획 7.31까지 제출 (법령으로 의무화)
    - 8.21까지 우선순위 선정하여 회답. 재무부 예산 작성
    - 법 9조 2항 : 위치, 규모, 기준을 바탕으로 기관들이 계획서 제출
    - 13조 : 기준에 대한 권고 가능
  2. 기준
    - 위치 지형, 조건, 재해방지, 전기설비, 교통 등 기준 설정
    - 최저기준을 제시
    - 기술기준 제시 : 각 청에서 쓰는 통일된 기준 18개
    - 예산, 계획에 관련된 기준과 시행에 관련된 기준으로 나뉨
    - 각 기준은 각 기관들이 작성
    - 고시 밑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기준
    - 재무성에서 직접 발주하는 국가공무원 숙소면적 산정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토교통성에서 담당
  3. 보존 및 사용 지도 업무
    - 보존 및 이용 유지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에서 담당
    - 관청영선부에서는 기준제시하여 유지관리 여부를 파악
    - 법적 근거 : 일반건축물→건축기준법 80조 유지보존에 관한 항목 / 12조 점검에 관한 항목, 관청건물→관공청 시설에 관한 법률 제12조
    - 점검항목 고시
    - 설명회 교육 업무 실시
- \* BIMMS system 도입
-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사무관이 관리하는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
  - 점검 항목 및 일정 알림(1~3년 주기 점검)
  - 중장기 보전계획 관리에서 근거 데이터로 활용

- 재단 건축보전센터에서 관리하고 각 청에서는 담당 건축물관 확인 가능 (영선부 전체관리)
- 보전상태조사정보관리: 매년 1회, 대상건물, 특별회계로 지어진 건축 제외. 매년 보고서 작성. 지방국 설명회 개최

#### [공공건축 설계 프로세스]

1. 발주에 관련된 사항
  - 수의계약은 없고 대부분 제안서 제도를 통해 진행
  - 관계법령 : 국토교통성 [통달집] 등 규정집을 근거로 진행 / 재무성 회계법 (입찰관련) / 기타 건축기준법
2. 제안서 제도와 현상설계
  - 현상설계는 최근 10년간 대규모, 특수 사례가 아니면 진행하지 않음
  - 현상설계 사례: 국립미술관, 시자페리 설계
  - 제안서 자격 : 일본1급건축사면 누구나 등록 가능 / 프로젝트 공고 시 자격요건 있음
  - 제안서를 위한 작성지침 있음 : 배점기준, 평가기준 포함. 실적점수와 제안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
  - 설계비 예정가격을 적어 입찰가격에 맞출 때까지 한 자리에서 협상 (낙찰률 90%)
  - 제안서 제도 배경 : 93~94년경부터 시작. 현상설계의 과도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돈으로만 하기 어려운 아이디어 자체를 평가하기 위함
  - 제안서 분량 : A4 한 장, 간결하게 작성
3. 프로젝트 기획
  - 공무원이 직접 기획
  - 필요에 의하면 관계자를 통해서 조언을 구함
  - 기본적으로 각청 영선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및 타 부처에서 전문가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지원
4. 시공 :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술제안까지 같이 평가
5. 계약
  - 설계비 산정기준 : 영선부 설계비 산정기준 있음 (평가 방식, 공사예정 가격, 도면 수 등)
  - 근거법률 : 회계법을 기본, 공사 표준적산
  - 설계변경 여부 : 설계변경 요청시 변경계약 신청

#### [공공건축 관리 시스템]

1. BIMMS 설명
  - 디지털 도면을 업로드 하는 기능이 있으나 용량이 적어 잘 넣지 않음
  - ID 당 용량 제한 있음
  - 도면과 micro film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음
  - 보전실태조사정보관리, 점검기록정보관리, 기본정보관리, 시설관리, 복합시설종합평가 분석 등 제공

#### [공공건축 사례]

1. PFI 도입사례: 설계, 시공, 유지 일괄 입찰
  - 중앙 합동 청사 제 7관
2. 그밖에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, 국립서양미술관, 호류지옥물관 등을 사례가 있음

## 가. 주요 자문회의 내용

### 1. 일본 니켄세케이 건축사사무소 일본건축사 자문회의

- 일시: 2009.03.23 월요일 09:00~13:00
- 장소: 도쿄 니켄세케이 도쿄본사  
(東京都千代田区飯田橋2丁目18-3)
- 참석자: 자문위원 - 사토 요시노부(佐藤義信) 이사,  
윤철재 주임 (니켄세케이)  
연구진 - 이상민 부연구위원, 김진옥 부연구위원, 이민우 연구원  
통역 - 김용선 박사 (공학박사, 동경대 신영역창성학과연구과 연구원)
- 주요내용



#### [자문의 목적]

- 1) 관청영성부가 설계사무소와 사업을 진행하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파악
  - 2) 또한, 각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비교  
(다른 성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)
  - 3) 일본건축사 입장에서 공공건축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에 따른 절차의 차이점과 설계 과정의 문제점 등을 확인
- \* 도쿄 현업에서 35년 설계를 하신 사토상과 일본 설계사무소의 한국업무를 맡고 있는 윤철재 주임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각 국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의 현황을 비교 파악하고자 함

#### [발주제도에 관한 사항]

1. 공공건축이 현상설계에서 설계, 시공 일괄입찰이 된 것은 언제부터 인지 (턴키와 같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없었는지)
  - 공공건축의 경우 세금을 쓰는 상황이다보니 시장성이 들어가 각각 입찰하게 됨
  - 흔히 민간에서는 설계, 시공을 한꺼번에 계약함
  - 수의계약 등은 불가능  
(영빈관과 같은 경우 역시 제안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지만 보안 특성상 수의계약과 같은 결과가 됨)
2. 우리나라에는 국제법과 같은 근거 법률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
  - 국가 및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별 각기 다른 법이 존재할 것
3. 등록업체 제도의 방식
  - 설계사무소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각 프로젝트별로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공개 제안서를 낼 수 있음
  - 200억 이상의 큰 프로젝트의 경우 지명 현상설계를 진행하기도 함
4. 제안서 제도 절차
  - 공개제안서 공지가 나오면 조건에 맞는 등록업체들로부터 A4 한 장, 문서위주의 제안서를 받음
  - 실적과 제안서에 따라서 5개 사를 선정하고 발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

- 여기서 선정하는 것은 안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
- 개념은 유지한 채 설계를 계속 진행
- 제안서를 위한 지침서 있음

#### 5. 총리 영빈관의 사례

- 영빈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국토교통성이 진행을 하고 니켄세케이이는 도와주기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수의계약
- 보안 문제로 발표 불가
- 교토 영빈관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총리 영빈관과의 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짐

#### 6. 제안서 비용은 얼마가 드는가

- 교토영빈관의 경우 50만엔 이하
- 한국 현상설계의 경우 매 프로젝트당 1~2억 지출되는 상황과 비교됨

#### 7. 제안서 제도의 경위

- 20년전 시작되어 15년전부터 정착됨
- 기본적으로 설계와 공사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계산

#### [계약에 관한 사항]

##### 1.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

-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처별로 다름

##### 2.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

-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음
- 계약서에는 기간과 변경료에 대한 사항이 있음
- 95%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제안서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수월하지 않음
- 나머지 5% 정도가 현상설계로 진행(도쿄포럼, 간사이도서관, 신국립미술관 등 대형, 국제현상설계 프로젝트에만 해당)

#### [기획단계에 대한 사항]

##### 1. 발주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이 있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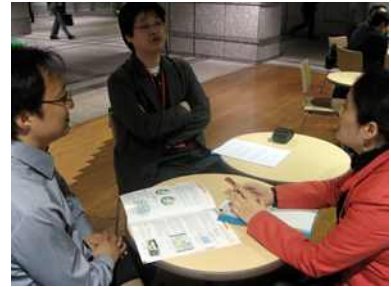
-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은 보통 건축쪽 담당 공무원이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함
- 설계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연구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음

#### [일본설계자의 입장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]

1. 제안서 제도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

## 2. 일본 동경대 연구진 자문회의

- 일시: 2009.03.25 수요일 19:00~22:00
- 장소: 도쿄 신주쿠 오크우드 회의실
- 참석자: 자문위원 - 김용선 박사 (공학박사, 동경대 신영역창성학과연구과 연구원)  
연구진 - 이상민 부연구위원, 김진욱 부연구위원, 이민우 연구원
- 주요내용



### [일본 공공건축 조사 진행]

1. 관청영선부의 각종 지침 등 사례 조사
2. 도쿄도청 등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, 지방 사례 조사 필요

### [공공건축 총괄관리 필요성 및 의미]

1. (패러다임의 변화)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(consensus) 형성
  -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발생: 건축기본법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
2. 공공건축에 공공성 필요 (공공성의 의미 서술)
  - 공공소유의 자산으로서 공공건축
  - 공공 생활의 공간으로서 공공건축
3. (현황) 예산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공건축 조성프로세스
  - 예산 효율성을 추구하는 중앙 정부: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 관 중심, 행정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, 절차상의 합리화를 통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
  - 개별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: 전체적인 변화 대응보다는 각 단계별, 개별적으로
4. (방향제시)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 합리화를 위한 공통 agenda 발굴
  - 근거 법률의 개정 개선: 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계약 관련, 발주 관련 제도 개선
  - 건축경제 관련 연구 진행: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축적과 분석
  -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: 지속적인 교육과 참고 지침 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판단 유도
5. 연구 전략
  - ① 법정리, 공공건축 특별법, 통합조직
  - ② 정부청사관리소 역할 확장 (대안제시, 역할명시)
  - ③ 국건위 공공건축 관리에 대한 부처 조성. 행정안전부 대안방안 제시

## 나. 일본 공공건축물 답사

### 1. 일본 신국립극장 - 문화시설 신축 사례(일본건축학회상, BCS상 수상)

장소 : 日本東京都渋谷区本町1丁目1-1

일시 : 3월 23일 14:00~18:00

조사원 : 이상민, 김진옥, 이민우

- 건축물 개요 및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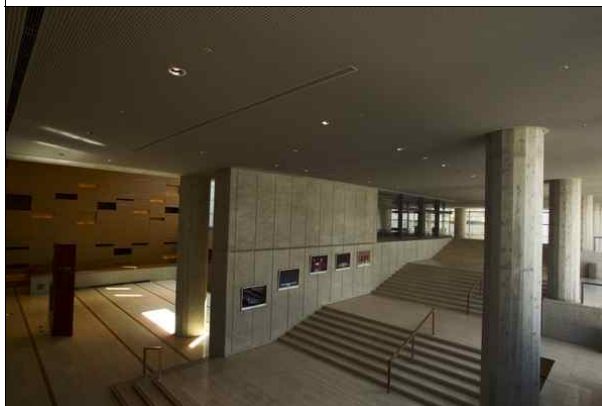
설 계	柳沢孝彦 + TAK建築・都市計画研究所
대지면적	25,500m <sup>2</sup>
건축면적	13,795m <sup>2</sup>
연면적	69,475m <sup>2</sup>
구 조	철골철근콘크리트조
준 공	1997년



외관



내부



내부



내부



## 2. 일본 중앙 합동 청사 제 2호관: 방재기능, 고도정보기능,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정비

### 일본 중앙 합동 청사 제 6호관 - 근대건축물 재보수 사례

장소 :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

일시 : 3월 24일 09:00~12:00

조사원 : 이상민, 김진욱, 이민우

- 건축물 개요 및 사진

			
霞が関 지구 조감도		위치	
			
중앙 합동 청사 제 6호관		중앙 합동 청사 제 2호관	
설 계	엔데 & 베크맨	설 계	-
건축면적	3,369 m <sup>2</sup>	건축면적	5,857 m <sup>2</sup>
연면적	9,867 m <sup>2</sup>	연면적	114,000 m <sup>2</sup>
구 조	벽돌조	구 조	철골철근콘크리트조
규 모	지상3층	규 모	지상21층, 지하4층
준 공	1895 년 / 1995년 복원공사완료	준 공	2000년



### 3. 동경국립박물관 호류지옥물관(東京国立博物館 法隆寺宝物館)

(일본건축학회상, BCS상 수상)

장소 : 東京都台東区上野公園13-9

일시 : 3월 25일

조사원 : 이상민, 김진욱, 이민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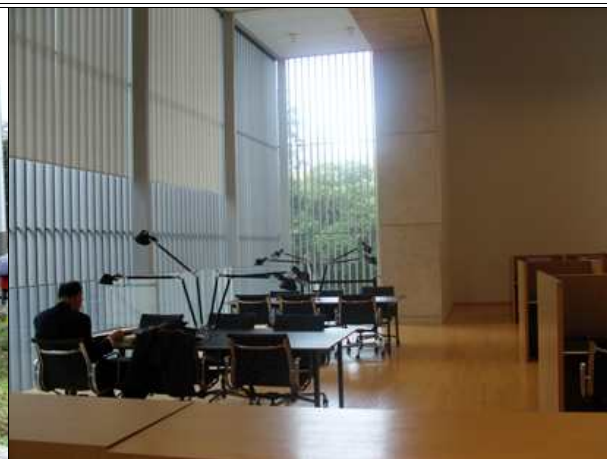
- 건축물 개요 및 사진



발주자	国立国会図書館 / 国土交通省関東地方整備局
설계	谷口建築設計研究所
대지면적	105,401m <sup>2</sup>
건축면적	1,934m <sup>2</sup>
연면적	4,030m <sup>2</sup>
구조	철근콘크리트조(일부 철골조)
층수	지하 1층, 지상 4층
총공사비	48억엔
공사기간	1994년 10월~ 1999년 3월



외관



내부

#### 4.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 방문(리노베이션 사례)

장소 : 東京都台東区上野公園12-49

일시 : 3월 25일

조사원 : 이상민, 김진욱, 이민우

- 건축물 개요 및 사진



발주자	国立国会図書館 / 国土交通省関東地方整備局
설계	니켄세케이 건축사사무소
대지면적	5,433.76m <sup>2</sup>
건축면적	1,929.58m <sup>2</sup>
연면적	6,671.63m <sup>2</sup>
구조	조적조, 일부철골, 철골철근콘크리트조
층수	지하 1층, 지상 7층
최고높이	GL+26.24m
주차장	8대
공사기간	1998年 3 月 ~ 2002年 3 月
비고	共同設計・監理：安藤忠雄建築研究所



입구



내부

## 5. 국립서양미술관 (외국건축가 설계 증축사례)

장소 : 東京都台東区上野公園7-7

일시 : 3월 25일

조사원 : 이상민, 김진옥, 이민우

### • 건축물 개요 및 사진



발주자	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 国立西洋美術館 / 国土交通省関東地方整備局
설계	르꼬르비지에(1959년), 前川國男建築設計事務所(1979년), 前川建築設計事務所(1998년)
대지면적	30,093m <sup>2</sup>
건축면적	1,178m <sup>2</sup>
연면적	56,275m <sup>2</sup>
구조	철근콘크리트조
층수	지하 4층, 지상 3층
공사기간	1959년 건축, 1998년 개증축
비고	共同設計・監理：安藤忠雄建築研究所



입구



외관

## 2. 제출자료목록

	제 목	주 요 내 용	발 간 연 도	발 행 처	형 태
1	관청영선(官庁営繕)	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소개	2008	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	브로셔
2	BIMMS-N	보전사무지원시스템 소개	2008	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	브로셔
3	官公庁施設の建設等に関する法律 (관청영선에 관한 법률)	관청영선부 근거 법률 및 규칙	2006	-	출력물